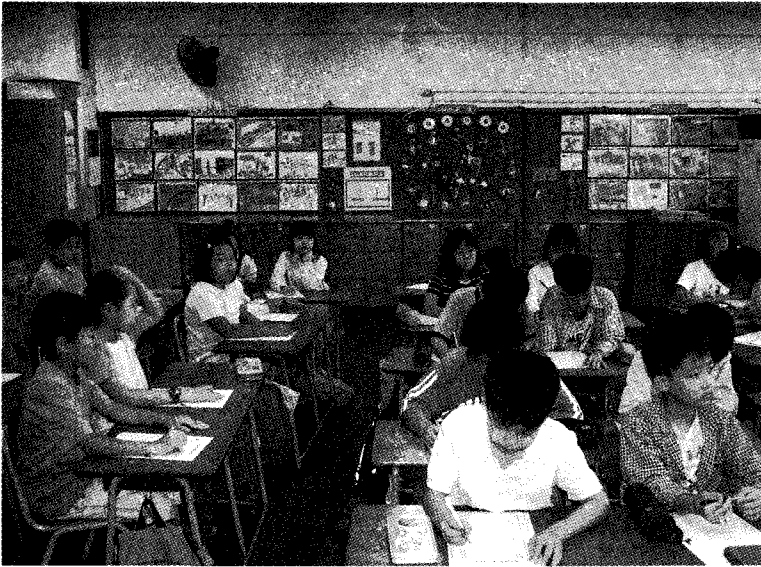


담배, 끊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담배 끊은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혹시라도 이 말 때문에 담배 끊기를 포기했다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그만큼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역설하는 말이나, 이렇게 끊기 어려운 담배를 만약 처음부터 피우지 않았다면 어떨까? 요즘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흡연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법도 한 얘기다. '처음부터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흡연예방교육의 목적이다. 취재를 위해 찾은 서울시 봉천초등학교는, 흡연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글 박연숙(본지기자)

대한결핵협회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의 대상을 올해부터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전지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혹자는 무슨 초등학생에게 흡연예방교육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조기 흡연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우문'이다. 한 달 전에 읽은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몇십년 전 읽은 동화책의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나는 법, 이것이 바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이 흡연예방교육의 연령을 오히려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 봉천초등학교의 경우는 정해철 교장선생님 이하 일선 교사들이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잘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에 뛰어든 케이스다. 지난



교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봉천초등학교 학생들

7월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지부에 흡연예방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반응이 좋자 9월에 다시 한 번 교육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흡연예방교육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심봉화 선생님(3학년 2반)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기도 전에 담배를 피우고, 중독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자식같은 마음에 안쓰럽다고 한다.

“대학생인 아들도 담배를 피워요. 엄마로써 무척 속상하죠. 더 속상한 것은 이 아이에게 담배를 선택하지 않도록, 아무도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봉화 선생님은 좀더 어린 나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보건선생님의 소개로 대한결핵협회의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봉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된 교내 방송실. 흡연예방교육을 생중계 하기 위해 시설을 점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경복 교감선생님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나선다. 교감선생님도 한때는 애연가였으나 수년전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12월 31일 12시'를 기점으로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담배를 줄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죠.”

신경복 교감 선생님은 한때 담배를 끊기 위해 웬만해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를 끊는다고 하니 주변에서 선물이라며 담배 한 보루를 사다 주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끊기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이다. 어렵게 담배를 끊고 나니 밥 맛 좋고, 건강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의지가 강한 탓에 봉천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도 알아주는 흡연예방교육 시범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신문에 학부모 수기를 받는 등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교육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나눠주고 있는 심봉화 선생님

또한 학년별로 글짓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캐릭터나 표어 만들기, 나의 주장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생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동작구청의 금연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봉천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한결핵협회가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은다.

“금연교육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담배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흡연예방교육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

흡연예방교육의 효과

“발이 썩고, 폐가 썩고,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도 담배 피우는데, 집에 가서 피우시지 말라고 할 거예요.”

대한결핵협회의 흡연예방교육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특히 다리를 절단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아이들에겐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 폐의 사진 한 장이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듯했다.

이러한 동영상을 본 어린이들은 나중에 담배를 접할 때 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아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조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흡연예방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